

로저 그린 박사,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 강의 26, 디트리히 본회퍼

© 2024 로저 그린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 분은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그의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 디트리히 본회퍼에 대한 26번째 세션입니다.

오늘 11월 22일, 그리고 오늘의 196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랜트가 알고 있는지 봅시다.

오, 오늘 빛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떠나서 추수감사절 휴가를 위해 집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우리는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11월 22일, 1963년, 50년 전; 50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신문에 실렸습니다. JFK, 정말 JFK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오늘인 1963년 11월 22일, JFK 암살과 같은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날 죽었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JFK 암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죽었고, 아무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잡지 중 일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50년 전 오늘 CS 루이스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큰 손실이었어요.

글쎄요, 오늘은 간단한 경건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디트리히 본회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제자의 비용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싶습니다.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정말, 강력한 책입니다. 산상 수훈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는 우리가 얼마 전 수업에서 언급한 내용, 즉 값비싼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리, 원칙, 체계로서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의 용서가 일반적인 진실로 선포됨을 의미합니다. 신의 사랑은 기독교의 신에 대한 인용문, 개념, 인용문으로 가르쳐집니다. 그 생각에 대한 지적인 동의는 죄의 사면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은혜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고수하는 교회는 사실상 그 은혜에 참여한다고 여겨진다. 그런 교회에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싸게 덮어줄 곳을 찾는다. 회개는 필요 없고,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은 더더욱 필요 없다.

그러므로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의 정당화 없이 죄를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거둬들여야 하는 복음이며, 구해야 하는 선물이며, 사람이 두드려야 하는 문입니다. 그러한 은혜는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고, 사람에게 유일한 참된 삶을 주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것은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고, 은혜는 죄인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값비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께 그의 아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값비싼 것입니다. 당신은 값을 치르고 데려왔고, 하나님께 많은 값을 치르신 것은 우리에게 값비싼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지불할 너무 비싼 값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를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제자도의 비용.

그러니, 여러분이 제자도의 비용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독서 목록에 추가하고 싶을 겁니다. 방금 들어온 두 친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50년 전 오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1963년 11월 22일예요. 모든 신문에 실렸어요.

그랬나요? 고맙습니다.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이었습시다. 이제, 교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50년 전 교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0년 전 JFK와 같은 날 사망한 사람은 CS 루이스입니다. 수업 시간에 아무도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모든 관심이 JFK에게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썄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는 최초의 참 신자들을 얻었고, 지금은 빛을 본 사람이 네 명이나 되었고, 배교자는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고, 여러분이 멋진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월요일로부터 일주일 후에야 다시 만날 수 있고, 그 수요일에 여러분이 제게 네 가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우리는 Dietrich Bonhoeffer에 대한 Memories and Perspectives라는 영상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우리는 리뷰 세션을 가질 것입니다.

월요일에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수요일에 두 번째 리뷰 세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수업일이 5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꽤 빨리 진행되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디트리히 본회퍼에 있습니다. 배경은 하나, 신학은 두 개이고, 그의 신학의 몇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급한 첫 번째 것은 교회론과 공동체로서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디트리히 본회퍼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론에 대해 다루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리는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도의 비유에 대해 읽은 내용에서 보셨죠.

복음은 무엇인가? 값비싼 은혜는 무엇인가?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므로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학의 중심이고, 그의 신학의 초점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과 성육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실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 중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무엇의 중심인가요? 그는 모든 현실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현실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디트리히 본회퍼에게 있어서 세계를 통합하는 요소입니다.

이제 세상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본회퍼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현실을 포함한 현실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때때로 고든의 학생들이 "이 수업 이후에는 아무도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을 말하게 합니다. 때때로 고든의 학생들이 "제가 현실 세계로 나가면, 아마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실 세계로 나가면, 여러분에게 전할 소식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공동체, 즉 그리스도가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고든에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이것이 현실 세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디트리히 본회퍼가 묘사한 대로입니다.

고든 칼리지에서 나올 때, 당신은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비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현실의 중심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 누구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현실 세계로 들어갔을 때, 당신은 현실 세계에 있는 거야"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고든 칼리지의 현실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이고, 당신은 본회퍼에 관한 한, 어쨌든 매우 비현실적인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중심입니다. 이제, 이 모든 현실의 중심인 그리스도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 가지 종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미지는 현실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신은 고통받는 신입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의 고통을 깨닫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신은 고통받는 신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과 나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세상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재적 기능은 본회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그런 종류의 질문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것은 항상 디트리히 본회퍼의 생각의 최상위에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날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세상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본회퍼가 그의 그리스도론을 다룰 때, 이 세 가지 종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사실, 본회퍼 아래에 두 번째인 신학이 있고, 그런 다음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

그러니까, 1번은 교회론입니다. 2번은 그리스도론입니다. 3번은 종교, 인용하자면, 그리고 그가 종교 없는 기독교라고 부른 것입니다.

종교와 종교 없는 기독교. 이제, 이것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고, 본회퍼는 여기서 매우, 매우 쉽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을 찾고, 신을 알고, 신에 대해 배우려는 모든 시도 ,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를 좋아하지 않고, 종교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고, 종교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에게 신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신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찾기 위해 이런 모든 종류의 종교적 과제를 겪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디트리히 본회퍼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그가 종교 없는 기독교라고 부른 것이고, 종교 없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으실 때, 그것은 그 결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성경을 설명하는 교리를 믿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종교는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을 찾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이 우리를 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종교 없는 기독교. 좋아요, 네 번째는 세상입니다. 본회퍼는 세상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글썄요, 그는 세상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그가 세상에 대해 말하는 첫 번째 것은 세상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아시다시피, 본회퍼는 저를 가능한 한 빨리 이 세상에서 꺼내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글썄요, 이 세상이 당신의 집이 아니라면, 세상이 별로 좋지 않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상은 정말 사악하고, 등등.

본회퍼는 그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을 신이 의도한 대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는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자면,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 얼마나 염려하셨는지, 그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디트리히 본회퍼에게 세상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본회퍼는 세상의 관점에서, 본회퍼는 우리가 세상을 마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 우리는 수도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역 사회를 통해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가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마주하고, 세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

이제, 당신은 바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기도는 아주 사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이고, 그런 식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세상을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세상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때때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된다면,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고,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고난은 교회가 세상과 마주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보인다면, 교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훌륭한 루터교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은 당신의 소명을 통해서, 당신의 부름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소명을 통해서 세상에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이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모든 직업은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루터교 교리입니다. 본회퍼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억하세요.

모든 직업은 동등하게 가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직업과 더 나쁜 직업은 없습니다. 모든 직업은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만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상과의 관계 측면에서, 그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돌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선,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서 누구를 돌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돌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글썄요, 우리는 돌보아야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노숙자, 무력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항상 다가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본회퍼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과 함께 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소외당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학살당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게토에 들어가고 있었을까요? 누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본회퍼는 뉴욕과 흑인 커뮤니티에서 얻은 교훈을 독일로 가져가서, 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유대인들과 함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과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 그들을 대신해서 일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를 돌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이제 정부와의 관계는 어때야 할까요? 좋아요. 글썄요, 그는 훌륭한 루터교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그는 교회가 신적으로 정해졌고 정부도 신적으로 정해졌다고 믿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와 국가에 대해 이런 종류의 이해를 가질 겁니다. 문제는 국가가 권력을 남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더 이상 신이 정해놓지 않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나치처럼 사악한 국가가 존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글썄요, 본회퍼는 영화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회퍼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그리고 다시, 영상에서 이것을 보여줄 것이지만, 국가가 비국가로 행동할 때, 정부가 비정부로 행동하고, 분명히 권력의 경계를 넘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에 권력의 한계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에, 국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국가에 그 권력이 신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상기시킬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권한을 넘으면, 신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살면서 그 정권이 권력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싸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말한 것과 약간 관련이 있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를 싸매는 것입니다. 권력 남용의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는 그들과 함께 서서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물론 Bonhoeffer의 경우, 당신은 희생자들의 상처, 이 경우 유대인들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약간 이상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Bonhoeffer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퀴에 스포크를 넣었습니다.

이제, 이미지는 도로를 달리는 차입니다. 이 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을 봅니다. 가서 큰 막대기를 가져와서 차의 바퀴를 막아서 차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신은 바퀴에 스포크를 넣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신은 그 차가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멈춥니다. 필요하다면.

글쎄요, 그는 히틀러를 죽이려는 음모에 연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퀴에 스포크를 박았습니다. 그는 바퀴에 스포크를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다른 이미지는, 본회퍼가 물었습니다. 만약 차가 길을 달리고 있고 도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차가 길을 달리고 있고 미친 사람이 운전대 뒤에 앉아 사방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을 들이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인가요? 당신은 차에 타서 미친 사람에게서 운전대를 빼앗고, 미친 사람에게서 차의 조종권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글쎄요, 본회퍼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나치 정부는 통제 불능의 차와 같았고, 사람들을 학살했으니까요. 이제 그 차에 뛰어들어 운전대를 잡고 우리 스스로 차를 조종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관련해서 세 가지 종류, 당신이 하는 세 가지 일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본회퍼에게 중요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디트리히 본회퍼, 신학에 대한 첫 번째 배경, 바로 그 신학적 요점, 교회론, 그리스도론, 종교, 그리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트리히 본회퍼에서 벗어나고,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기억과 관점에서 많은 것을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메모를 적을 수 있도록 작은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영상을 보기 전에 질문이 있나요? 본회퍼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꽤 놀라운 사람이에요. 한 권만 읽을 거라면 *At the Cost of Discipleship*을 읽어야 합니다. 본회퍼의 두 번째 책을 읽을 거라면 *Life Together*를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Dietrich Bonhoeffer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Ted와 저는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와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회의에 갈 예정인데, 제가 속한 학회 중 하나는 International Bonhoeffer Society

입니다. 그래서 Baltimore에서 International Bonhoeffer Society의 회의가 세 번 열리고, 논문에서 Bonhoeffer에 대해 읽고 Bonhoeffer에 대한 최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테니 매우 흥미롭습니다. 좋아요, D,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Dietrich Bonhoeffer에서 현재까지 이런 종류의 신학적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교황 요한 23세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그의 날짜를 적었는지 봅시다. 아니요, 적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엔 내가 그의... 그냥 여기로 보내줘. 앗, 미안해.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해해.

좋아요, 이제... 오, 저기 있네요. 좋아요, 그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좋아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목록에 있어요, 교황 요한 23세, 1881년~1963년.

좋아요, 좋아요, 교황 요한 23세. 이제, 교황으로서의 그에 대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는 1958년에 교황이 되었으므로, 그의 교황 임기 면에서는 58세에서 63세였습니다. 이제, 교황 요한 23세의 선출은 매우,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 교황 요한을 선출했습니다... 그는 교황 요한 23세라는 이름을 따서, 대행 교황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 를 돌볼 예정이었고 , 그런 다음 우리는 진짜 교황을 그 자리에 앉힐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미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황 요한 23세, 임시 교황,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전혀 임시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봅시다. 네, 없다면, 아니요.

좋아, 보호자 교황. 파워포인트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넣었어. 정말 다행이야. 좋아.

놀랍게도, 그는 거의 즉시 썼어요... 아니, 즉시는 아니었지만, 교황 재임 중에 그는 강력한 회칙을 썼고, 그 회칙의 이름은... 그리고 제가 적지 않았으니, 제가 철자를 써드리겠습니다. 그 회칙의 이름은 Pacem, PACEM, PACEM, Pacem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n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terris , TERRIS, Pacem in terris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

그리고 Pacem in terris 는 무슨 뜻일까요? 보면 거의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구에 평화, 세계 평화, 지구 평화. 그리고 교황으로서 그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살롬을 가져오기 위한 모든 사업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롬, 즉 지구상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때는 모든 국가 간에 협력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권력에 대한 주장을 접어두고 모든 국가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협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의 주요 문서인 Pacem in terris , 즉 지구상의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Pacem in Terris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위해 그 당시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핵전쟁 직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은 당신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러시아가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했을 때 어땠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90마일 떨어진 쿠바에 핵 추진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그게 어땠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케네디 대통령이 11월 22일에 암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국가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 옛날 이야기였기 때문에 흑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텔레비전을 켜기 위해 텔레비전으로 걸어가야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을 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제 말은, 이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흑백이기도 합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없어서 흑백입니다. 저는 그가 연설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과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거의 숨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텔레비전에서 한 말, JFK가 텔레비전에서 한 말은 흐루 쇼프 씨에게 쿠바에서 미사일을 빼라고 말했고, 그렇지 않으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지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핵전쟁에 매우 가까웠고, 우리는 그저, 알다시피,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그 세상, 50년대, 60년대 초의 세상에서, 요한 바오로 23세는 평화의 사람으로 나타나 세계 지도자들과 그의 가톨릭 교회에게 파두아 민 테로스, 즉 지상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다른 일은, 지금은 교황 대행이고, 그가 한 다른 일은 또 다른 교회 협의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 아래에, 아래에, 개요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과가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 10월에 소집되었고, 세계 협의회였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과는 다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임시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폭발시켰고, 그는 임시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랬습니다. 그가 한 일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바티칸 2세의 업적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따라가고 있다면, 이것은 개요 아래의 D2

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업적 몇 가지입니다. 그 결과로 가톨릭 교회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그냥 나열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모국어로 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사에 가면 영어나 스페인어, 독일어로 미사를 들을 수 있고, 라틴어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도 미사에 갔었고, 친구들과 가끔 미사에 갔었는데, 모든 것이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솔직히 말해서 그들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속어로 진행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정말 놀라운 단계이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겁니다. 좋아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두 번째 성과는 어떤 의미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로마 가톨릭과 다른 기독교인 간의 에큐메니칼 대화, 로마 가톨릭과 다른 기독교인 간의 대화 개방,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비기독교 종교와의 대화도 개방되어서, 로마 가톨릭의 영토에서 벗어나 비기독교 종교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60년대에 살아보지 않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에게로 퍼져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비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산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산물인 이유는 제가 보스턴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제가 들어간 프로그램은 로마 가톨릭 학교인 보스턴 칼리지와 개신교 학교인 앤도버 뉴턴의 프로그램이었고, 그 프로그램은 공동 박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스턴 칼리지 학위를 수여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었고 박사 프로그램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가 시작한 그런 종류의 에큐메니즘에서 혜택을 보았습니다. 좋아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론 또 다른 일은 일종의 성경 연구의 보급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 우리의 훌륭한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에 당신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티칸 2세 이전까지 로마 가톨릭 평신도들에게는 접근 불가능하고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바티칸 2세 이후 성경 연구를 장려하고 있으며, 많은 로마 가톨릭 학자들이 성경의 번역, 번역 및 주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가톨릭 학자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많은 로마 가톨릭 평신도들이 성경에서 배우고 싶어서 성경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게 다 바티칸 2세 때문입니다. 그게 다 요한 23세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일은, 당연히 여기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기 위해 하이라이트만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Hope의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Hope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틴어 불가타가 공식 번역이었습니다. 아니, 공식 번역이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다른 번역, 주석, 일종의 개방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읽을 때는 읽히고,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의 언어로 읽힙니다.

그리고 예쁜 녀석들, 스티브 헌트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지금 가져가고 있어. 정말 다행이야. 오, 가져가고 싶었어.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의에서 레이먼드 브라운을 언급했나요? 그는 레이먼드 브라운을 많이 언급하는데, 왜냐하면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세 번이나 네 번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 복음의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은 레이먼드 브라운이고, 레이먼드 브라운의 Anchor Bible 시리즈의 두 권짜리 해설은 정말 고전적인 텍스트입니다. 글썬요, 그게 다 바티칸 2세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바티칸 2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문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화에서 공개된 몇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여성 사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여성 사제가 있을까요? 이제 가톨릭 신자들은 바티칸 2세 이전에는 결코 말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성 사제를 두는 데는 먼 길이지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예입니다. 피임.

피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사제들의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성공회 사제들이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들어왔는지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사제들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2세 이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것은, 아시다시피, 그때가 제 시대였고, 그것이 카리스마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아마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만, 1970년에 배링턴 대학에 갔을 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익숙하게 들렸나요? 그리고 제 사무실 동료, 제가 첫날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공감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좋아요.

배링턴 칼리지에서 첫날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말했어요. 글썄요, 당신 사무실은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열쇠를 받고 들어가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꽤 큰 사무실이었지만, 책과 서류함, 그리고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나서 구석에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비어 있었어. 그래서 그게 내 것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걸 추론했지.

그래서 제가 들어갔고, 사무실에 15분 정도 있다가 들어와서 문을 채웠어요. 그는 키가 크고 튼튼한 사람이었고, 성공회 사제였고, 칼라와 십자가를 달고 있었고, 고든 칼리지 졸업생인 테리 풀럼이었고, 제 사무실 동료였거든요. 그래서 제 사무실 동료를 만났어요. 저는 성공회 사제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새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고, 저는 그가 카리스마적인 성공회 사제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오래 사귀지 않았고, 그것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주 동안, 그는 이제, 제가 여러분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그런데, 1인당 로마 가톨릭 신도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주입니다. 그래서 1인당 로마 가톨릭 신도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로드아일랜드 주인데, 그곳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카리스마적 갱신 운동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당신을 교육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를 로마 가톨릭 카리스마 집회에 데려갔는데, 카리스마적인 로마 가톨릭 신자들로 가득 찬 교회에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티칸 2세 이후에 논의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카리스마 운동이란 무엇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바티칸 2세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바티칸 2세와 요한 23세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결코 똑같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E로 넘어가서,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모더니즘에 맞서는 신학적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몇 가지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과정에서도 들었을 테니까, 여기서 꽤, 꽤 빠르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근대성, 계몽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그러니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우선, 근대성입니다. 근대성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근대성은 18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8세기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18세기에 서구 세계에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일종의 확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정의를 얻었고, 그런 식으로 근대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추론하고 추론할 수 있어요. 알다시피요. 그게 하나예요.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정의를 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은 우리가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문화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도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것이 계몽주의 시대로 알려진 이런 종류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세상의 신비를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계몽주의 시대에는 합리주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합리주의는 계몽주의의 특징이지만 합리주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에게 그것은 예를 들어 신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내세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이성만으로는 윤리, 도덕 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모더니즘은 18세기에 배운 것을 19세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계몽주의에서 배운 것을 19세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세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계몽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19세기에 적용하면,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수업에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세 가지 결과가 1위입니다. 교리에 대한 비판적 태도, 심지어 교리에 대한 회의적 태도, 그리고 교회의 교리, 교회가 19세기에 선포한 교리, 특히 그리스도론과 관련된 교리, 특히 그리스도의 본성과 구원, 구원론과 관련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19세기에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였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매우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수업에서 충분히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에 지쳤지만, 두 번째는 성경 비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성경 비평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급진적인 성경 비평도 꽤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비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성경 비평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채 성경 비평을 환영하는 것과 같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은 이것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교리보다는 윤리로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신학적 차원보다는 윤리적 삶과 도덕적 삶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에서 백 번이나 언급했듯이, 예수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좋은 도덕적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그 도덕적 모범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더니즘이에요. 그게 19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포스트모더니즘만 언급해 볼게요.

저는 어떤 사람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분명 모호하고 잘 정의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 고든 칼리지에서 수업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몇 번이나 이야기했나요? 많아요.

그러니까, 모호하고 정의가 불분명한 개념이에요. 제 생각엔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모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네 가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특징에 대해 더 생각해 보세요 .

다른 모든 과목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교리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 신학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제,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몽주의가 이성의 능력, 합리성이 우리 삶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확신했던 방식으로 확신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몽주의가 도움 없이

이성을 사용하여 삶의 기초를 쌓았다는 확신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벗어났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더 이상 그것을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특징이에요. 좋아요. 두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성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도덕적 토대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을 사용하여 일종의 도덕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좋아요. 세 번째는 반항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항인가요? 글썄요, 두 가지에 대한 반항입니다.

첫째, 권위에 대한 반항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이든, 성경과 같은 책의 권위이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권위에 대한 반항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에 대한 반항입니다.

전통에 대한 반항. 2,000년 동안의 교회,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등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일종의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번성하는데, 모두가 자기 일을 하고, 모두가 자기 생각을 하고, 등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 당신 자신의 생각 등을 넘어서는 권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일종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를 이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2번으로, 그리고 3번으로,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의 본질로 이끕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계몽주의의 기독교 신학 비판입니다. 좋습니다. 계몽주의의 기독교 신학 비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지만 5초 휴식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많은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추수감사절 휴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걸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이걸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걸 위해 필사적입니다.

그럼, 오늘 캠퍼스를 떠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수업이 있나요? 월요일에 수업이 있어요. 화요일에 수업이요? 화요일에 수업이요. 좋아요.

그럼, 오늘 몇몇은 캠퍼스를 떠날지도 몰라요. 좋아요. 휴식 시간 2초 더 주세요.

지내 ? 견뎌내고 있어? 좋아. 기독교 신학에 대한 계몽주의의 비판. 계몽주의의 기독교 신학 비판은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그 교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거야.

삼위일체 교리, 그리스도론 교리, 성령 교리, 기독교 생활 교리. 뭐, 뭐라고 하든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의 기독교 신학 비판, 우리가 이야기해 온 종류의 것, 또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를 세 번째 질문으로 이끕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의 본질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럼, 좋아요. 글썄요,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 갈 컨퍼런스에서 이것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의 본질에 대해 온갖 입장을 취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좋아요

. 글썬요, 기본적으로, 강의에 참석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읽히는 논문을 보면 세 가지 입장이 제시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좋아요? 1순위는 확실히 기독교 교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없애세요. 그리고 없애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 교리가 메가 스토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신과 창조, 타락, 은혜에 의한 구원 등에 대한 큰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큰 이야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와 당신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거대한 이야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말하는 논문이 많이 전달될 겁니다. 기독교 교리를 버리세요. 기독교 신학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거대한 이야기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대한 이야기를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개별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믿었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첫날에 멈춰서서, 좋은 학기를 보내라고 말했을 겁니다. 버릴 거라면 버리고 공부하지 말라고.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종류의 논문은 , 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 이야기를 입증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줍니다.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교리가 하는 일은 이야기와 성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성경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문자 C로 시작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교파나 제 교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논문을 들을 것입니다 .

그건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세 번째 것은 맞을 수도 있고, 두 번째에는 맞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에는 맞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다 버려라, 아무것도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는 들어맞겠지만, 두 번째에 어떻게 들어맞을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들을 세 번째 종류의 논문은 교리와 신학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교리와 신학은 괜찮지만, 실제로 시험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의 타당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타당성을 보이는지 어디에서 봅니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사는 더 넓은 문화, 더 넓은 세상에서 어떻게 타당성을 보이는지 봅시다. 당신이 지지하는 교리와 신학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더 넓은 문화에서 타당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개별 신자의 삶에서 타당합니까? 그것은 거기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리와 신학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응집력이 있습니까? 그런 종류의 믿음은 2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고, 그것이 성경을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2번, 즉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서 어느 정도 단절된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 교리는 모든 세대에서 항상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3번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들이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다루고 오늘날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신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의견일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F 번호로 넘어갑니다. 기독교는 자신과 다른 종교를 살펴봅니다. 그러니 먼저 로마 가톨릭과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다시피, 여러분 중 일부는 에큐메니즘과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화에 대해 발표된 논문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대화, 역사적 태도, 역사적 변화, 대화의 본질, 그리고 지속적인 합의와 불일치. 그러니까, 좋아요, 우선,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태도와 가톨릭이 개신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Mark Knoll의 강의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중 일부는 Mark Knoll의 강의를 듣지 않으셨나요? 일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글썄요, 그는, 그건 훌륭한 강의였어요, 그런데요.

제 말은, 당신이 그의 논문을 철저히 즐기고 그 안에 폭 빠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Is the Reformation Over?*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Is the Reformation Over?*라는 책에서 그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대화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여름 독서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넣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드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Casa Discipleship, Life Together, *Is the Reformation Over?* 그래서 여름 독서 목록에 좋은 책을 몇 권 전달했습니다. 좋아요.

그 책에서 그는 개신교도들이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겪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개신교도들과 겪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역사적 태도입니다. 그러니 개신교도들이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겪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진 한 가지 문제는 모든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을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톨릭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점에 대해 가톨릭교도들을 비판하는 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개신교의 역사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있으며, 교회는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들은 또한 마리아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너무 높이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공동 구속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마리아를 높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너무 높였습니다. 그러니, 좋습니다. 그들은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밑으로 하는 방식으로 확립된 방식이 모든 신자의 사제직을 사람들에게서 벗겨내고, 로마 가톨릭 신도들이 서로에게 사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거나 성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조언하고,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사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서로에게 사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스려지는 엄격한 위계 때문에 사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반면에 개신교도들과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 태도의 관점에서,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좋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톰, 딕, 메리, 모든 톰, 딕, 메리, 모든 사람이 성경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이어질까요? 이게 가톨릭교도들이 개신교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어디로 이어질까요? 그게 혼란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나쁜 소식입니다.

둘째, 가톨릭은 개신교도들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특히 교회의 교직을 통해 일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개신교도들보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훨씬 더 공동체 지향적이며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신교도들은 너무 친절하고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이 마리아를 소홀히 했다고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마리아를 너무 과대평가했고, 개신교도들이 마리아를 너무 적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신교도들이 마리아를 거부했고 마리아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개신교도들이 일곱 가지 성례를 버렸다고 믿고,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이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교회의 일곱 가지 성례라고 믿는 것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일곱 성례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신교도들이 그 부분에서 좋은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로마 가톨릭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이 사도 계승과 사도적 권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믿습니다.

주교 등의 사도적 권위, 주교, 공의회, 교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가 교회의 교직에 대한 사도적 권위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견, 세속화 등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역사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강의를 할 때, 그건 일주일, 일주일 반 후에야 할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론,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강의의 결론에 대해 몇 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추수감사절 주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 시작하든, 여러분 중 일부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축복합니다.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절 잘 보내세요.

돌아오면 월요일과 수요일에 영상을 볼 거예요. 수요일에는 다음 금요일과 다음 수요일에 대한 수요일 텍스트에서 네 가지 질문을 줘요. 우리는 모두 그것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것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멋진 추수감사절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

이 분은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그의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 이것은 디트리히 본회퍼에 대한 26번째 세션입니다.